

인도 식용유 수입업체, 전쟁발 가격 상승이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하며 구매 축소 (India's vegetable oil buyers step back, betting war-driven rally will ease)

인도 식용유 정유업체들은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가격 상승이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팜유, 대두유, 해바라기유 구매를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쟁 종료 이후 재고를 재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식용유 수입국인 인도의 구매 감소는 말레이시아산 팜유 및 미국산 대두유 가격 상승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인도 국내 식용유 가격과 유지작물 생산자에게는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EU 2025/26 연질밀 수출, 3월 22일 기준 전년 대비 6% 증가 (EU 2025/26 soft wheat exports up 6% by March 2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화요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2025/26 시즌 연질밀 수출량은 3월 22일 기준 1,714만 톤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주 1,677만 톤 대비 증가하고 전년 동기 대비 6% 높은 수준이다. 국가별로는 루마니아가 572만 톤으로 최대 수출국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어 프랑스 457만 톤, 폴란드 203만 톤, 리투아니아 181만 톤, 독일 134만 톤 순으로 나타났다.

알제리, 제분용 밀 구매 위한 국제 입찰 실시 (Algeria issues tender to buy wheat, traders say)

알제리 국영 곡물청 OAIC은 제분용 밀 구매를 위한 국제 입찰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입찰은 유럽 등 주요 공급 지역을 대상으로 6월 1~15일과 6월 16~30일 두 차례 선적 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남미, 호주, 인도산 물량의 경우 선적 시기가 한 달 앞당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Thomson Reuters